

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 <2부> 코리아안 드림 꿈꾸는 그곳에선

#### 2 판치는 한국형 브로커들



네팔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28일 오후 5시에 시험장인 카트만두 외곽의 리블엔젤스 학교 강당에서 시험감독들이 회수한 응시생들의 답안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집·땅 팔아 뒷돈 줬다 사기 당하기 일쑤

지난해 한국과 네팔정부간의 '고용허가제 방식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코리아안 드림'의 대열에 합류하려는 네팔인들 사이에서 '한국행'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패한 왕권이 몰락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해진 나라를 떠나려는 네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이미 통제력을 잃은 정부는 인력송출 브로커들을 방치하고 있어 피해자가 늘고 있다.

### 한국행 의지 강해 쉽게 속아

네팔 카트만두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이 처음 열린 지난달 28일 오후 1시, 17개 시험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리블엔젤스 중·고등학교를 찾아가기 위해 터널 거리에서 택시에 올랐다. 달리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허름한 택시 내부에는 낯익은 한국산 중고 미터기가 장착돼 있었다.

"한국에서도 외국사람이 택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어로 대화중인 기사 일행에게 택시운전자 디복 시버박씨(23)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팔의 택시운전사는 한 달에 5천루피(한화 8만원) 정도를 버는 직장인에 비해 2~3



응시생들이 기사가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시험지를 풀어달라'며 주위를 에워쌌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10여명이 브로커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천루피를 더 벌 수 있는 관찮은 직업이지만 최근 사정이 달라졌다. 휘발유 값이 1ℓ 당 한화 1천200원 대까지 치솟은데다 돈이 있어도 4시간 이상 줄을 서지 않으면 기름을 넣을 수도 없었다. 집세에 아들의 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가 '한국행'을 고민했던 이유다.

그는 인력송출 브로커들에게 대해 묻는 질문에 "60만루피(한화 950만원)를 내면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한국어시험에 합격해

도 정부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지 않으면 네팔을 떠날 수 없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시험장인 리블엔젤스 학교에 도착해 오후 4시30분이 되자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응시생들은 기사가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시험지를 풀어달라'며 주위를 에워쌌다. 몇몇 응시생들의 문제지를 함께 풀어본 뒤 "브로커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놀람게도 에워싼 사람의 절

반가량인 10명이 손을 들었다. 그들 중 브로커에게 건네줄 돈을 마련 중인 베다너더 포크릴(20)씨는 "시험에 합격해도 돈을 건네지 않으면 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을 처분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며 "대부분의 응시생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브로커 결탁 피해 키워

이들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면 현지 인력송출을 담당하는 EPS 직원(Employment Permit System)을 거쳐 네팔 유력 정당의 관계자에게, 또다시 한국 관계자에게 돈이 흘러들어간다고 믿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네팔 정부 관계자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한국사람이 끼여있는 인력송출 업체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익 루피를 챙겨 추방당한 사실이 네팔 최대 일간지 '칸티푸르(KANTIPUR)'와 TV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최근에만 4명의 한국인이 적발됐지만, 불안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 사법기관에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카트만두=글·사진 안현주기자

ahj@wangju.co.kr

### 브로커에 속아 전재산 날린 젊은이 속출

## "돈 떼이고도 하릴없이 기다려"

한국에 보내준다는 말에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수개월째 초조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단다파니(30)씨는 전형적인 브로커 피해 사례다.

카트만두 외곽에서 농사를 짓던 단다파니씨는 최근 카트만두 시내에서 한국어학원에 다니면서 '코리아안 드림'을 꿈꿨지만 40대 남성 브로커에게 모든 재산을 털리고 말았다.

지난해 12월 그는 브로커에게 15만루피(한화 230만원)를 착수금으로 건네고 추가로 60만루피를 마련하기 위해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을 모두 팔아 브로커에게 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브로커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것'을 조언했지만 브로커에게 단단히 속은 단다파니씨는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급기야 한국에도 못 가고 돈도 돌려받지 못한 그는 브로커로부터 연락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고 있다.

주변 친구들은 "이 같은 사실을 네팔 경찰이나 정부에 신고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고 답답해 했다. 인력송출 브로커들이 네팔 정부 관료들과 밀접하게 선이 닿아있는 데다 조직이 워낙 막강해 이 사실을 파헤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단다파니씨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한국에 가서 한 달에 100만원 가량만 벌어도 이곳의 가족 20여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며 "돈을 떼 나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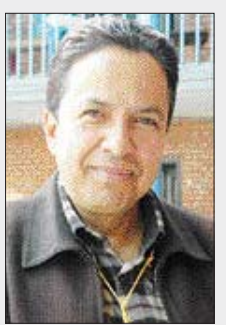
### ■ 네팔 노동자 송출 감독관 우쁘레디씨

## "'브로커 조심' 광고 내지만 조직·자본 막강 속수무책"

"불안한 정치적 현실로 인해 응시생들이 네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카트만두 시내에 위치한 '시바쁘리 중·고등학교' 한국어능력시험장에서 만난 네팔 EPS(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감독관 러치미나라만 우쁘레디(49)씨는 "정부를 믿지 못하는 네팔 젊은이들이 인력송출 브로커들에게 어렵게 모은 돈을 건네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우쁘레디씨는 지난 3개월 동안 네팔의 EPS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보내달라'는 청탁을 수없이 받았다. 브로커들이 '돈의 일부를 EPS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응시생들을 속이면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알고 있는 응시생들이 '한국행'을 청탁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지금까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청탁을 받은 것만 15건이 넘는 정도다.



응시생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네팔 EPS 사무실 측은 유력 일간지와 방송사, 잡지 등을 통해 '브로커를 조심하라'는 광고를 10여 차례 내보냈다. 하지만 막강한 조직과 자본력을 갖춘 브로커들의 활동을 저지시키기에는 부족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인력송출 전문업계를 경영하며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브로커들이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인해 독자적인 송출이 어려워지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투명한 인력송출이 이뤄진다면 피해가 줄어들겠지만,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은 네팔에서 당분간은 이런 피해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어교사 양성과정 입학생모집  
영어교사 23000명 내년부터 채용!

# TESOL

당신도 영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광신대학교 교육대학원(TESOL교육원)  
www.kwangshin.org 017-269-0582

正統日食 미도

## 확장기업

일일미도에서 25년째 일하며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미도. 확장기업을 위해 모집합니다. **바로 저만찬**

**입성/수입특선**

미도정식	7,000원
미도저만찬	12,000원
특선 요리(미도저만찬정식대행)	15,000원

**총매출 50억 이상 (우선은 미도정식을 채용합니다)**

공부하는 미도사람의 사명 **미도정식** ☎ 234-0001